



# 주간 통일정세

2012-31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北 '6·25 전승절' 대규모 경축행사 예고(7/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올해 '조국해방전쟁 승리' 59돌을 맞는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 전승절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된다"고 밝힘으로서 북한이 6·25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을 기념하는 '전승절' 경축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를 것으로 보임.
  - 통신은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전국의 전쟁노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해 경축행사에 참가시킬 데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셨다"며 "전쟁노병 대표들이 참가하는 전승절 경축행사를 온 나라의 대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전함.
  
- **'리영호 숙청' 최룡해 현지시찰(7/24, 조선중앙통신)**
  -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민속공원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통신은 최룡해가 공사마감 단계에 있는 민속공원을 돌아보면서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기적과 혁신을 일으킨 군인 건설자들을 고무해줬다"고 전함.
  - 최룡해는 이에 앞서 농업과학원을 찾아 메탄가스 발생시설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천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함.
  
- **김정은, 능라인민유원지 세 번째 현지지도(7/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능라인민유원지를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 1위원장은 이날 유원지 안에 만들어진 미니골프장, 물놀이장, 곱등어(돌고래)관 등을 둘러보며 "이것(능라인민유원지)을 본보기로 온 나라에 인민의 사상감정, 미적 지향과 요구에 맞는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함.
  - 김 1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최태복·박도춘·김영일·김양건·김평해·문경덕 당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춘홍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수행함.
  
- **'김정은 부인 추정 여인' 10일 만에 또 등장(7/2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5일 김 1위원장의 전날 능라인민유원지 시찰 소식을 전



하면서 노란 물방울무늬의 붉은색 재킷과 검정색 스커트 차림에 검정색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성이 김 1위원장과 동행하는 사진을 공개함.

● **北매체 일제히 '김정은 원수' 호칭(7/26,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연합뉴스가 26일 북한 매체의 보도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 1위원장이 원수 칭호를 받았다고 발표된 지난 18일 이후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모든 보도매체가 김 1위원장의 이름 뒤에 '동지와 더불어 '원수'를 대대적으로 붙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전승절(7월27일) 경축행사의 자강도 전쟁노병 대표들의 참석에 관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각 계층 근로자, 가족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에 의해 평양으로 떠나가는 전쟁노병들을 열렬히 환송했다"고 전함.

● **김정은·리설주 부부 '전승절' 軍공연 관람(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6일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전승절(휴전일, 7월27일) 59돌을 경축하는 조선인민내무군협주단 공연을 부인 리설주와 함께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공연 관람에 참석한 현영철 군 총참모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했으며 공연 소식을 전하며 현영철을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현영철"이라고 소개함.

● **정전협정 59돌...北 '선군' 역설(7/27,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TV)**

-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7일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받들어 삼천리강토 위에 하루빨리 통일조국을 일떠세우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실천투쟁 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된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성원하고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역설함.
- 사설은 "선군은 우리 조국의 승리와 번영의 기치이며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함.
- 조선중앙TV의 경우 보통 오후 5시인 방송시작 시각을 앞당겨 오전 9시께부터 예술영화 '젊은 참모장' 등 군대와 전승절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내보냄.

● **北 평양서 정전협정 59돌 중앙보고대회(7/2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7일 평양체육관에서 6·25전쟁을 멈추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9주년을 기념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보고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경희·문경덕·김기남·



곽범기·김양건·김영일 당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인민 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당·정·군의 고위간부와 전쟁 노병 대표, 장병, 항일혁명투사, 비전향장기수, 근로자들이 참석함.

■ **김정은동향**

- 7/25, 김정은 원수, 준공을 앞둔 능라인민유원지 시찰(7.25, 중통·중·평방)
  - 장성택·최태복·박도춘·김영일·김양건·김평해·문경덕·리재일·김병호·박춘홍 등 동행
  - 김정은이 항공군부대에 긴급출동명령으로 폭우로 고립된 평안북도 운산군 좌리 주민 60명 전원 비행기로 구조(7.25, 중통·중방)
- 7/25, 김정은 제1위원장,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참석(7.25, 중통·중·평방·조중TV)
  - 김정은 부인 '리설주' 공식 거명
  - 김영남·최영림(준공 테이프 절단식), 최룡해, 김경희, 김정각, 장성택,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문경덕, 곽범기, 로두철, 리병삼, 등 참가
  - 김정은 제1위원장,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황북 신평휴게소 지배인 등에 감사(7.26, 중방)
- 7/26, 김정은 원수, 7.26 '전승절' 경축 내무군협주단 공연 관람(평양 봉화예술극장) 및 기념촬영(7.27, 중통·중·평방) ※리설주(부인) 대동 관람석 입장
  - 현영철(총참모장)·김경희(黨 비서)·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김영춘(黨 부장)·김기남·김양건·김영일·김평해·문경덕(黨 비서)·리병삼(내무군 정치국장) 등 동행
- 7/27, 김정은 원수, 완공단계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시찰(7.27, 중통·중·평방)
  - 김경희(黨 비서)·장성택(국방총 부위원장)·량청송(黨 부부장) 등 동행



#### ■ 기타 (대내 정치)

- '전승절'(7.27/정전협정 체결일) 59돌 기념행사, '김정은의 직접 발기에 의해 성대히 개최' 예정(7.23, 중통)
  - '전쟁노병 대표들이 참가하는 전승절 경축행사' 준비사업 적극 추진
- 최영림 내각총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평양시 오류남새전문협동농장·황해북도 린산군 대촌농장 현지요해(7.23, 중통)
- 최룡해(총정치국장), 완공을 앞둔 평양민속공원 건설정형 요해 및 농업과학원 시찰(7.24, 중통·중방)
- 김영남, 7.29 전승절 행사 참가 전쟁노병들 숙소 방문(7.29, 중통)
  - 전쟁노병 대표단, 7.29 인민군 무장장비관 참관 및 옥류관에서 점심식사(7.29, 중통)
  - 김영남, 베트남과 라오스 공식친선 방문 예정(7.30, 중통)
- 김영일(黨비서), 7.29 브라질 공산당 중앙위 국제비서와 담화(7.29, 중통)
  - 노동당 중앙위, 7.29 브라질 국제비서를 위해 고려호텔에서 연회 마련(7.29, 중통)

### 나. 경제

#### ● 北 "'개혁·개방 시도' 해석은 아전인수격"(7/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9일 최근 북한이 보이는 변화의 조짐을 '개혁·개방 시도'로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라고 개혁·개방설을 부인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경이적인 사변들을 연이어 펼쳐는 우리의 격동적인 현실은 온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다"며 "괴뢰패당이 최근 현실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정책변화의 조짐'이니 '개혁·개방의 시도'니 하고 떠들고 있다"고 말함.
- 대변인은 "모든 정책은 절세의 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어떤 추호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며 "어느 한 분야도 개혁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나라의 문을 닫아맨 적도 없다"고 주장함.

### 다. 사회·문화

#### ● 北 "곳곳에 폭우...철도유실·인명피해"(7/24, 조선중앙통신)

- 최근 발생한 태풍과 폭우로 인해 자강도 등지의 철도운수 부문에서 큰 피해가 나고 각종 인명피해도 발생했다고 북한매체들이 24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내린 폭우로 동신~개고, 개고~진평 구간의 철도 수백m의 노반(路盤)이 유실돼 열차 운행이 임시 중단됨.



- **北, 홍수현장 긴급구조에도 "김정은 만세"(7/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는 25일 김 1위원장이 군(軍) 비행기를 긴급 출동시켜 큰물(홍수)로 생사기로에 섰던 주민과 노동자 60명을 구원했다고 일제히 보도함.
  - 구조된 주민과 노동자들은 '김 1위원장의 은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함.
  - 중앙방송은 이번 구조작전에 대해 "우리 당이 꽃피우는 사랑의 전설이 또다시 전해져 천만의 심장을 울리고 있다"며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자연의 광란을 물리치고 사경에서 해매던 수많은 근로자를 구원하는 기적을 낳았다"고 찬양함.
  
- **北-서양 첫 합작영화 9월 평양서 상영(7/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9월20일~27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서양과 북한 감독이 함께 만든 합작영화가 상영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전함.
  - 합작영화는 벨기에 출신 제작자 앤저 대일만스 씨와 고려여행사의 영국 출신 니콜라스 보니 씨 등 서양인과 북한 영화관계자들이 만든 로맨틱 코미디물 '김 동무 날아가다(Comrade Kim Goes Flying)'임.
  
- **'조난' 북한 화물선, 오만 앞바다서 구조(7/26, 연합뉴스)**

  - 북한 화물선이 오만 앞바다에서 조난해 현지 항구 당국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종현 주오만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북한 화물선이 화요일(24일) 오후 두름 항으로부터 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구조를 요청했다"면서 "구조에 나선 현지 항구 당국이 당일 저녁 북한 선박을 두름 항으로 인도했다"고 전함.
  - 북한 선적의 화물선은 'MV 대신(Daesan)' 호로 선장 '김도우(Kem Dou Wuo)' 씨를 포함해 33명의 승선원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됨.
  
- **北, 태블릿 PC 독자 개발...인기(7/27, 연합뉴스)**

  - 정보 통제가 엄격한 북한에서도 최근 태블릿 PC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중국 언론 등을 인용해 27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 자체 기술로 개발한 태블릿 PC '아침'이 보급됐으며 이 태블릿은 7인치 크기에 무게가 300g으로 한번 충전해 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유·무선 온라인, 사진촬영 등 구체적인 기능은 알려지지 않음.
  
- **北, 新휴대전화 녹음·녹화기능 없애(7/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전문 일본 언론사인 '아시아프레스'의 공동대표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씨는 2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작년 10월부터 '1913'으로 번호가 시작되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보급하





고 있다고 밝혔다 RFA가 28일 전함.

- 이시마루씨는 "'1913' 기계는 녹음·녹화, 사진전송,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 저장용량은 10~20 메가바이트밖에 안 되고 메모리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전에는 특정지역에서 등록된 휴대전화를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신형 휴대전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함.

● 北 "태풍·폭우로 88명 사망...134명 부상"(7/28, 조선중앙통신)

- 최근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북한 전역에서 88명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18~24일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폭우 등으로 북한 전역에서 88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치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北中 공안기관 수장 베이징서 회담(중합)(7/24, 조선중앙통신)

- 리명수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인민보안부대표단이 24일 베이징을 방문해 멩젠주(孟建柱) 부장 등 중국 공안부 대표단과 회담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 서로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함.

● 방중 北리명수 보안부장 저우융강 만나(7/24, 조선중앙통신)

- 중국을 방문 중인 리명수 북한 인민보안부장이 24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저우융강(周永康)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저우 상무위원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의지를 표시했다"며 "두 나라 보안기관 사이의 협조에 대해 언급하고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중조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함.

● 北, 홍수현장 긴급구조에도 "김정은 만세"(7/25,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는 25일 김 1위원장이 군(軍) 비행기를 긴급 출동시켜 큰물(홍수)로 생사기로운 섰던 주민과 노동자 60명을 구원했다고 일제히 보도함.
- 구조된 주민과 노동자들은 '김 1위원장의 은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함.



- 중앙방송은 이번 구조작전에 대해 "우리 당이 꽃피우는 사랑의 전설이 또다시 전해져 천만의 심장을 울리고 있다"며 "김정은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이 자연의 광란을 물리치고 사경에서 헤매던 수많은 근로자를 구원하는 기적을 낳았다"고 찬양함.
- **北 "전세기 이용 외국인관광 활발"(7/25, 조선중앙통신)**
  - 전세 항공편으로 북한에 들어가 명승지를 둘러보는 외국인 관광객이 활발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24일 평양~상하이(上海) 항로를 통한 전세기 편으로 중국 상하이지역 관광단이 평양에 도착했다"며 "평양~상하이 항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된다"고 전함.
- **北 "美 조건없이 평화협정 체결해야"(7/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5일 "미국이 조건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외무성은 정전협정 체결일(1953·7·27)을 이틀 앞둔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정전협정 체결로부터 59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코 회피하는 것 자체가 적대시 정책의 가장 대표적 표현"이라고 강조함.
  - 담화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억제력을 먼저 내놓을수 없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화도 '대화를 위한 대화'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전역사의 총화"라고 함.
- **상반기 北주민 방중 급증...전년比 30%↑(7/26, 미국의소리(VOA))**
  - 올해 1~6월 중국을 찾은 북한주민은 총 8만8천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900명(30%) 늘어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기관자료를 인용, 26일 보도함.
  - 중국 국가여유국의 '2012년 상반기 외국인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입국한 북한주민 8만8천800여 명 가운데 4만2천200명은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작년 상반기의 3만4천100명보다 24% 증가한 것임.
- **中서 北 근로자 인기..."3D업종 대신 메워나가"(7/26, 연합뉴스)**
  - 북한 근로자들이 최근 중국 랴오닝(遼寧)성, 지린(吉林)성 등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근로자는 임의로 이직이나 이동이 불가능한 안정적인 인력인 데다 인건비 측면에서도 현지 인력보다 30% 이상 경쟁력을 갖춰 중국 기업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 북·중 사이에 일정 규모의 북한 인력 파견 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당국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완화해 인력 도입이 수월해졌다는 게 현지 기업인들의 전언임.

- **상반기 북중 교역액 31억달러…사상 최대(7/27, 미국의소리(VOA))**
  - 올해 상반기 북한-중국의 교역액이 3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중국 상무부의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함.
  -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은 12억9천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억6천만 달러에 비해 22% 증가했으며 수입도 지난해 14억5천만 달러보다 26% 늘어난 18억3천700만 달러였음.
  
- **만포~지안 국경다리 건설 北이 주도(7/2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중국이 지난 5월 건설하기로 합의한 만포~지안 국경다리 건설을 북한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방송이 입수한 중국어 협정문에 따르면 이 다리 건설에서 주교량 북측 진입교의 설계와 건설은 북한이 책임지고 중국은 중국측 진입교의 설계와 건설을 맡기로 함.
  
- **北 리명수, 김일성 부자 방문지 中 장쑤성 찾아(7/29, 신화일보)**
  - 29일 현지 언론매체인 신화일보(新華日報) 인터넷판에 따르면 뤼즈쥘(羅志軍) 장쑤성 당 서기가 사흘 전인 26일 난징(南京)시를 방문한 리명수 부장과 회동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
  - 뤼 서기는 회동에서 "중국과 북한의 여러 세대에 걸친 영도자들과 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양국 간 전통적 우의 관계가 공고하게 발전해왔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가 생전에 각각 두 차례씩 장쑤성을 방문해 대단히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고 강조함.



#### ■ 기타 (대외 일반)

- 北 인민보안부 대표단(리명수) - 中 공안부 대표단(멍지엔주 부장) 회담, 7.24 베이징에서 진행(7.24, 중통·중방)
  - 쌍방은 두 나라 보안기관들 사이의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저우융캉', 7.24 北 인민보안부 대표단 접견(베이징 인민대회당) 및 '北-中 정치·경제·문화 등 친선관계 강화와 보안기관들간 협조 및 北 대표단의 訪中이 중조 관계발전에 적극 기여' 표명(7.25, 중통)
  - 北 인민보안부 대표단(단장 : 리명수 부장), 7.24 평양 출발(7.24, 평방·중통)
- [北외무성대변인 담화(7.25)] 정전협정체결일(7.27) 즈음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용단 촉구(7.25, 중통·중방)
  -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억제력을 먼저 내놓을 수 없게 될 것임.
  - 말로만 적대시 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구실이나 전제조건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실천행동으로 그를 증명해 보여야 함.
  - 우리에게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째 들어내어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도 있음.
- 【국방위 대변인 성명(7.29)】 미국의 '對北 정치테러행위('전영철' 사건)에 대해 초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위협(7.29, 중통·중방)
  - 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실제적인 초강경대응으로 맞설 것, ② 미국의 국가정치테러에 강한 물리적 대응공세로 맞설 것, ③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비열한 국가정치테러음모를 선군으로 위력으로 짓부셔 버릴 것임.

### 3. 대남정세

#### ● 북한산 희토류 남북 공동개발 추진(7/23, 연합뉴스)

- 남북한이 공동으로 희토류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작년 9월 자사가 투자한 중천 흑연 광산(황해남도 연안군 정천리 소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자원 개발 문제를 협의한 데 이어 11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로부터 희토류 광석 샘플 4개를 전달받아 경제성을 분석했다고 23일 밝힘.



- **北, 백령도 인접 공군기지에 공격헬기 배치(7/23, 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 백령도에 인접한 공군기지 2곳에 공격헬기 50여 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지난 5월부터 북한의 황해남도 태탄과 누천 공군기지에 공격헬기 수십 여대가 배치된 것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 헬기들은 대지(對地) 공격과 고속 기동훈련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힘.
  - 전진 배치된 헬기는 북한이 1980년대 중반 생산하기 시작한 MI-2 개량형(일명 '혁신-2')을 비롯한 1950년 초반과 1980년대 말 옛 소련에서 각각 도입한 MI-4, MI-8 등 50여 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 **北조선사회민주당, 통합진보 새 지도부에 축전(7/24, 연합뉴스)**
  - 북한 조선사회민주당이 강기갑 대표 등 새 지도부를 구성한 통합진보당에 축전을 보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조선사회민주당은 이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라는 명의로 통합진보당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귀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축하와 따뜻한 동포애적 인사를 보낸다"고 밝힘.
  - 조선사회민주당은 또 "귀당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룩하며 당을 보다 대중적이고 영향력 있는 진보정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임.
- **北군인들 '李대통령 실명 표적지'에 또 사격(7/24,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이 '김일성 동상 파괴 미수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이 적힌 표적지에 사격을 가하는 장면을 또 공개했다 24일 연합뉴스가 전함.
  - 24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TV의 전날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이 방송은 오후 9시50분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끝낸 직후 양강도인민보안국 소속 군인들의 '복수결의'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이 대통령의 실명과 비난문구가 적힌 표적지에 사격하는 장면을 내보냄.
- **北황강댐 23일부터 소량 방류 확인..피서객 대피(7/24, 연합뉴스)**
  - 북한이 임진강 북쪽에 있는 황강댐을 23일 새벽부터 소량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북한은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24일 연천군과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 측 최전방 남방한계선 내 필승교(황성수위국) 수위는 2.73m를 유지하다가 황강댐 방류로 23일 낮 12시부터 상승하기 시작함.
- **北 대남 선전전단 1만6천여장 발견(종합)(7/26, 연합뉴스)**
  - 북한에서 날린 대남 선전전단 1만6천여 장이 최근 경기도 파주와 양주에서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1~25일 오전 북



한에서 제작한 전단 10여 종 1만6천여장이 남한 지역으로 날아왔다"면서 "파주와 양주지역에서 경계 활동 중이던 우리 병사들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힘.

● 北 "동상파괴 테러 근원에 물리적 공세"(7/29, 연합뉴스)

- 북한은 29일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 사건을 거론하며 남한과 미국에 '강력한 물리적 공세'가 따를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국방위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가정치테러의 본거지가 미국으로, 테러의 집행자가 쥐명박 역적패당으로 확인된 이상 근원을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공세가 따라서게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도 유명무명의 위력한 타격수단이 있다"고 밝힘.
- 성명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변함없이 실제적인 초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 군사력 전반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짓부셔버리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선택"이라고 주장함.

● 北 "'동까모' 본거지는 美...초강경 대응"(7/29, 연합뉴스)

- 북한 국방위원회는 29일 대변인 성명에서 "테러의 본거지가 미국으로, 집행자가 X명박 역적패당으로 확인된 이상 근원을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물리적 공세가 따라서게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도 유명무명의 위력한 타격수단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성명은 "'시민혁명'으로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정권이 연속 교체되고 사태가 수습되지 못하는 것도 미국의 국가정치테러가 판을 친 것과 관련돼 있다"며 "내란으로 번지는 오늘의 험악한 수리아(시리아) 사태 역시 미국의 검은 테러의 마수가 뻗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역적패당의 이번 특대형테러사건(탈북자 '전영철') 조작은 '남북관계 개선을 전면 부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악랄한 반통일적 범죄'라고 지속 비난(7.23,중통·노동신문/불법무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
- 중앙통신사 논평, 南 언론들의 '전영철' 사건 보도(날조, 사실무근 등)를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추태, 역적패당이 계획적으로 추진한 국가정치테러사건이 명백하다'고 주장(7.23,중통/황당무계한 궤변)
- 미국과 역적패당은 '국제법과 동족도 안중에 없이 특대형정치테러를 감행한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강변(7.23, 중통·노동신문/정치테러행위의 배후조종자)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성 김 대사 "北핵 해결해야 평화협정 가능"(7/25)

-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25일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에 전혀 반대의사가 없지만 북한이 핵개발과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를 계속 하는 한 평화협정에 사인할 생각이 없다"고 밝힘. 성 김 대사는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관계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연설하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는 경제제재는 이유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 북한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면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또 "북한이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핵·미사일문제,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미국이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임.
- 성 김 대사는 "북한이 2·29 북미합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를 위반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지만 미국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생산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그는 "북한 지도자들이 버마(미얀마) 상황을 보기를 기대한다. 북한과 버마는 부정적 공통점이 많은데 최근 버마 지도부가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경제적 개혁을 단행키로 했다"며 "버마 지도부의 이런 긍정적인 결정에 미국과 국제사회는 적극 화답했다"고 역설했음.

#### 나. 미·북 관계

##### ● 北 "美 조건 없이 평화협정 체결해야"(7/25)

- 북한은 25일 "미국이 조건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함. 북한 외무성은 정전협정 체결일(1953·7·27)을 이틀 앞둔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정전협정 체결로부터 59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한사코 회피하는 것 자체가 적대시 정책의 가장 대표적 표현"이라고 강조함. 담화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 억제력을 먼저 내놓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화도 '대화를 위한 대화'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전역사의 총화"라고





말함. 이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선사품'이나 흥정물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므로 먼저 철회돼야만 한다."고 주장함.

#### 다. 중·북 관계

##### ● 방중 北리명수 보안부장 저우융강 만나(7/25)

- 중국을 방문 중인 리명수 북한 인민보안부장이 24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저우융강(周永康)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통신은 저우 상무위원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의지를 표시했다"며 "두 나라 보안기관 사이의 협조에 대해 언급하고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중조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전함. 리 부장과 저우 상무위원의 만남에는 멩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과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 등이 배석했으며 리 부장은 이에 앞서 멩 부장 등 중국 공안부 대표단과 회담을 함.

#### 라. 일·북 관계

##### ● 日 정부, 대북 대화 가능성에 '엇갈린 발언'(7/27)

-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대북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두고 총리와 외무 부(副)대신(차관)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대북 관계와 관련해 "대화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곧바로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힘. 방위계획 대장(大綱)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함.
- 노다 총리는 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에 대해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하도록 미국,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말함.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하지만 아마구치 쓰요시(山口祐) 외무 부대신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인 유골 반환 등 인도적인 문제에서 대북 접촉 가능성을 시사 하는 발언을 함. 그는 북한에 있는 구 일본군 병사 등의 유골 수집에 대해서 "인도적인 문제인 만큼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기에 실현되면 좋겠다."고 언급함. 북한 측이 최근 민간단체를 통해 일본에 제안한 유골 수집이나 성묘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며 "북한 측이 좀 더 정확하게 타진하길 바란다."며 "(정부간에) 접촉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마. 러·북 관계

##### ● 北, 러극동 지역 학생 250여명 휴양소 초청(7/28)

- 러시아 초·중등과정 학생들이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북한 내 휴양소에서



약 2주동안 여름 방학을 보낼 예정이라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하바롭스크주와 연해주 등 러시아 극동 지역 학생 250여명이 북한 동해안의 '송도원' 어린이 휴양소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날 평양에 도착함. 러시아 학생들은 이곳에서 중국, 나이지리아, 베트남, 몽골 학생들과 함께 다음달 11일까지 지낼 예정이. 금강산 관광까지 포함된 여행비용은 항공료를 제외하곤 모두 북한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외국 학생들을 휴양소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소개함. 함경남도 원산에 있는 송도원 휴양소는 명사십리로 알려진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 해당화가 어울려 경관이 빼어난 곳임.

바. 기 타

● 김인규 ABU 회장 내일 방북..올림픽 중계 협의(7/23)

- 김인규 KBS 사장이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회장 자격으로 24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사장을 포함한 ABU 관계자 4명은 런던올림픽 중계권 등 북한과의 방송교류 협의를 위해 24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임.
- 김 사장의 이번 방북은 ABU 회장 자격이지만 지난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민간 조문단을 제외하고 남측 인사로서는 처음임. 북측은 27일 개막하는 런던올림픽의 북한지역 중계에 큰 관심이 있고, 중계지원 요청을 위해 ABU 측의 방북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런던올림픽에 여자축구, 마라톤, 탁구, 유도, 레슬링, 역도, 사격, 양궁, 여자복싱 등 11개 종목에 50여명을 파견한 북한은 중계권을 갖고 있지 않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독점계약으로 오는 2024년 하계 올림픽까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올림픽 중계권을 보유한 SBS는 최근 북한지역 중계권을 IOC에 위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ABU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등 저개발국에 대해 국제스포츠 중계권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음. 대북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스포츠 정치'를 통해 체제결속을 다지도록 올림픽 중계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함.

● 북한산 희토류 남북 공동개발 추진(7/23)

- 남북한이 공동으로 희토류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작년 9월 자사가 투자한 종천 흑연 광산(황해남도 연안군 정천리 소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자원 개발 문제를 협의한 데 이어 11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로부터 희토류 광석 샘플 4개를 전달받아 경제성을 분석했다고 23일 밝힘. 조사



결과 경제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명돼 북한과 3차 협의를 하려 했으나 작년 12월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논의가 중단됨.

- 공사는 자사가 중국에 투자한 희토류 공장 2곳(시안, 베이징)에서 북한 희토류를 정제하는 방식을 검토 중임. 공사의 한 관계자는 "공동생산에 중국이 참여하면 남북관계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지금은 정부가 입북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희토류는 스마트폰, 노트북,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북한에는 약 2천만기량의 희토류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남한에서도 희토류가 발견됐지만 경제성이 낮고 정제 과정에서 공해가 생겨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함.

### ● 北, 백령도 인접 공군기지에 공격헬기 배치(7/23)

- 북한이 서해 백령도에 인접한 공군기지 2곳에 공격헬기 50여 대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지난 5월부터 북한의 황해남도 태탄과 누천 공군기지에 공격헬기 수십여 대가 배치된 것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 헬기들은 대지(對地) 공격과 고속 기동훈련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힘. 전진 배치된 헬기는 북한이 1980년대 중반 생산하기 시작한 MI-2 개량형(일명 '혁신-2')을 비롯한 1950년 초반과 1980년대 말 옛 소련에서 각각 도입한 MI-4, MI-8 등 50여 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 이들 헬기는 12.7mm 등 기관총과 250~500kg 폭탄, 57mm 로켓, 대전차 유도탄 등으로 무장했으며 북한은 총 300여 대의 각종 헬기를 보유하고 있음. 북한은 우리 군이 서북도서에 공격용 코브라헬기(AH-1S)와 다연장로켓 등의 화력을 배치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헬기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분석됨.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하계 훈련차 후방부대에서 전개됐다가 훈련이 끝나면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 ● 北군인들 '李대통령 실명 표적지'에 또 사격(7/24)

- 북한이 '김일성 동상 파괴 미수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이 적힌 표적지에 사격을 가하는 장면을 또 공개함. 24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TV의 전날 프로그램을 확인한 결과, 이 방송은 오후 9시50분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끝낸 직후 양강도 인민보안국 소속 군인들의 '복수결의'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이 대통령의 실명과 비난문구가 적힌 표적지에 사격하는 장면을 내보냄. 북한 매체에 이 대통령 실명이 적힌 사격 표적지가 등장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여 만이며 방송에서는 군인들이 주먹으로 벽돌을 깨는 장면, '이명박'이라는 이름과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림이 그려진 표적지에 군인들이 소총과 권총으로 사격하는 장면, 군견이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가 붙어있는 사람 형상의 모형을 물어뜯는 장면이 잇따라 나옴.
- 군인들은 이 방송에서 "내무군 장병들의 가슴마다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동상을 파괴하려고 무분별한 책동을 감행한 미제국주의자들과 이명박 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가 짝 차있다"며 복수를 다짐함.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사주로 김일성 동상을 파손하려다가 체포됐다고 주장하는 탈북자 전영철의 기자회견 내용을 공개한 뒤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연일 우리 정부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음. 북한이 이 대통령 실명이 적힌 표적지에 사격을 가하는 장면을 또 공개한 것은 이번 '동상 파괴 미수사건'을 계기로 대미, 대남공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됨.

### ● "北 김정은 부인 공개는 계산된 행보" <외신> (7/26)

-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자주 동행했던 여성이 그의 부인인 리설주라고 공식 확인하자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달라진 행보에 대한 분석을 쏟아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간) 김 위원장과 함께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에 참석한 부인 리설주의 모습을 전하며 북한이 '퍼스트레이디'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함. 또 김정은의 이 같은 선택은 비밀을 고집했던 아버지 김정일과 차별화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한편 어린 나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계산된 행보라고 분석함.
- NYT는 김정일 시절에는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이 그의 부인을 방송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다며 리설주의 등장을 북한의 주요 변화라고 평가함. 실제로 김정일은 최소 3명의 부인을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매체에서 이들을 공식 언급한 적은 없으며 김정은조차 후계자로 공식 지목된 2010년 이후에야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음. NYT는 그러면서 북한이 김정은의 결혼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그의 성숙함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함. 영국 인디펜던트는 북한이 리설주를 공개한 것은 김정은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의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함. 또 김정은의 통치방식이 베일에 싸여 있었던 아버지 김정일보다는 부인 김정숙이나 자녀와 함께 공개석상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음.
- 국제위기그룹(ICG)의 대니얼 핑크스톤도 북한이 리설주를 공개한 것은 김정은을 아버지 김정일과 차별화하는 것뿐 아니라 북한 내부, 특히 나이 많은 군부에 김정은의 어린 나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함. 맨스필드 재단 고든 플레이크 이사장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통해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북한이 김정은을 성숙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게 하는 한편 어린 나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힘.
- 김정은은 또 은둔형 지도자였던 아버지와 달리 대중 앞에 자주 나서고 공개연설도 마다하지 않는 등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음. FT는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행보가 대내 대외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분석을 소개하기도 함.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내달 20~31일 UFG연습..미군 3만여 명 참가(7/23)

-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 연합연습 중 하나인 UFG는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지휘소 연습임. 미군 측에서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병력 3천여 명을 포함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만여 명이 참가하며 한국군에서는 군단, 합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6천여 명이 참여함.
- 유엔에서 파견된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7개국 요원들도 참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스위스, 스웨덴 요원들도 연습을 참관,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임. 또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3천700여 개 기관에서 44만여 명이 참가하며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와 재해재난 관련 대피훈련 등 국민 참여형으로 실시됨.
- 앞서 유엔사는 지난 20일 오전 북한군 판문점 군사대표부에 UFG 연습 시기와 목적 등을 통보함. 연합사는 "UFG와 유사한 훈련과 연습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과 정전협정 규정에 준해 실시된다."고 설명함.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군사령관은 "UFG는 한미 양국군의 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습"이라며 "실질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범정부적으로 필수 과업에 대해 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함.

#### ● 한수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필요"(7/24)

- 한국수력원자력(김군섭 사장)이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함. 재처리 문제는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관계자는 24일 "국가 간 협정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함. 그는 "우리나라가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서 "재처리를 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원전 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함. 또 "2~3년 뒤면 포화 상태인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의 용량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임.
- 한국과 미국 정부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2010년 말부터 진행 중임. 한국 측은 수년 내에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이 포화 상태가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미국은 핵무기 제조 가능성이나 핵 비확산 정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짐.





### ● 세이모어 "원자력협정개정, 해결책 있을 것"(7/24)

-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과 관련, "이 이슈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세이모어 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014년까지 협상할 시간이 있다"면서 "워싱턴과 서울에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평화적인 핵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함. 1974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유효하며, 한미 양국은 그 전에 협정개정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협상중임.
- 현재 한국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우리나라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제적인 핵비확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온적임. 특히 한국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가 매년 700t 가량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세이모어 조정관은 "한미 양국의 과학자들이 매우 긴밀하게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래서 나는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히 언제 그 해결책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함.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신기술이다. 한국 측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 우려 없이 방사성 폐기물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매년 700t 가량 쏟아지는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미국은 파이로프로세싱 역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 기술의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세이모어 조정관은 세계적으로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다른 방안이 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농축 우라늄을 구매할 수 있다"고 말함. 그는 "한국이 민수용으로 고농축우라늄(HFU)를 사용할 특별한 용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 "주한미군, 해병 확충·요격시스템 배치 검토해야"(7/29)

- 한국군의 서해 인근 대북(對北) 방어·대응 능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해병대를 한반도에 추가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아울러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어역량 확충을 위해 패트리엇 3(PAC-3)와 고고도방어체계(THADD) 등 첨단 요격미사일시스템을 한반도 등에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옴.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작성한 '아시아태평양 미군배치 전략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지침과 관련, 태평양군사령부(PACOM)를 확충하고 아태지역의 미군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국방부가 201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따라 CSIS에 의뢰한 이 보고서는 지난 24일 미 상원 군사위에 제출됨. 보고서는 한반도 전략과 관련, "한국에서는 미 해병대의 한반도 주둔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서해상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군 해병의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고위급 지도층에서도 서해 북방도서 인근에서 한국 해병과의 훈련을 위해 미 해병대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함. 그러면서 "현재 동해에 주한미군 해병대인 '무적캠프'가 있지만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가 새로운 훈련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보고서는 아울러 "미군은 2004년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에서 여단 병력을 철수한 이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나 한국군 여단이나 미 육군 주방위군 및 예비역 등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미 주방위군 여단의 한국내 순환배치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함. 또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감안해 제2보병사단 예하 포병여단의 캠프케이시 북쪽 배치, 전투헬기 부대의 한반도 북귀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함.
- 기존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을 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기계화 보병, 포병, 항공 여단의 순환배치 형식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의 미군 장비·무기 보강, PAC-3 및 THADD 배치 등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됨.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경우에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함께 LCS 연합전투함의 경남 진해 배치, 주한미군 해병 배치 증강 등을 통해 한반도 방어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함. 다만 한반도가 통일되는 등 긴장이 완화하는 경우에는 비상시 미국 민간인의 대피작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한미군 병력(1만명 미만)만 유지하고, 군산 공군기지 등도 폐쇄할 수 있다고 밝힘. 한편 CSIS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함. 보고서는 "이 2개 협정은 3국의 공동훈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한·일 양국이 체결에 합의했다"면서 "장기적으로 한국 국민의 대일(對日) 감정은 대중(對中) 감정보다 긍정적인 것"이라고 전망함.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경우 한·일 과거사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

#### 나. 한·중 관계

##### ● 외교부 "김영환씨 주장 사실이면 中에 사과요구"(7/26)

- 외교통상부는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중국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중국 측에 엄중한 조치와 재발방지, 사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힘.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엄중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함. 한 부대변인은 "김영환씨의 진술 밖에 (증거가) 없는 형편"이라며 "현재 신체상 남아 있는 가혹행위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함. 한편 한 부대변인은 노다 요시



히코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1993년 고노 담화에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힘. 그는 "고노 담화는 군대 위안부 연행에 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강요에 의해 의사에 반해 모집됐음을 인정하며,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함.

### ● <국민이 고문당했다는데..對中 '저자세 외교'>(7/27)

-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가 중국 구금 당시 전기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당국은 구금 초기 고문과 가혹행위가 집중되는 기간에 영사 대응을 안일하게 했고, 2차 영사면담 때 전기고문과 구타 등이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듣고도 중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뿐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특히 외교 당국이 김씨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은 것은 중국 앞에만 서면 달라지는 우리의 '저자세 외교'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김씨가 중국 당국에 체포되고 한 달 정도 뒤인 4월26일 1차 영사면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한 것은 사실상 가혹행위를 당했음을 인정한 발언이었음에도 외교부는 한 달 반 뒤에 2차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김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했고, 중국 측에도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자료사진)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 측에 수차례 사실 확인과 조사를 촉구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고 강조했지만 중국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자 더는 손을 쓸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대응이 조금 실망스럽다"면서 "당사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말을 했으면 정부는 중국이 부인한다고 해도 (구금됐던) 4명을 각각 조사해서 실제적 진실에 접근했어야 한다."고 주장함. 하 의원은 "중국의 인권상황을 고발하는 등 대외적으로 알렸어야 한다."면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굴종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음. 그는 "(김씨와 함께 체포됐던) 유재길씨도 누워서 잠을 못 잤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심각하다. 다른 2명은 (가혹행위가) 없었겠느냐"면서 "추가로 기자회견을 할 것 같다"고 말함.
- 외교부 당국자는 이런 비판에 대해 "2차 영사면담 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엄중히 문제 제기를 했고 중국 측에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구금 당시에 공론화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김씨가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함.



## 다. 한·일 관계

### ● 日, 한국에 태평양 참치 어획 동결 요구(7/23)

- 일본 정부가 한국에 태평양 참치(참다랑어) 어획의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니혼게이지이신문에 의하면 일본 수산청은 올 들어 한국산 참치 수입이 급증하자 한국 정부에 태평양에서의 참치 어획량을 늘리지 말도록 요구함. 일본 수산청은 이와 함께 자국 유통업자와 도매업자에게 한국산 참치 수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함. 일본은 어자원 보호를 위해 국제기관의 참치 어획량 감축 결정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참치 어획량을 늘리지 말도록 요구했지만, 일본의 참치 어획량이 훨씬 많아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한국산 참치 수입은 이달 19일 시점에서 1천 341t으로 이미 작년 수입량(525t)의 2.5배에 달함. 수산청은 이 가운데 97%가 마리당 무게가 30kg 미만의 '미성숙어'여서 자원의 고갈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국제수산자원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지난 2010년 미성숙어의 어획량 감축을 결정했으며 일본은 이에 따라 2005~2009년의 평균 어획량(6천100t)에서 26%를 줄임. WCPFC는 당시 한국에 대해 예외적으로 어획량의 감축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으나 어획량을 늘리지 말도록 함. 일본 수산청은 하지만 한국 정부가 어획량의 관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 ● 日, 방위백서 31일 발표 확정(7/26)

-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올해 방위백서를 오는 31일 발표하기로 함. 26일 일본 방위성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이달 31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어 2012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한 뒤 공식 발표하기로 했음.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은 작년 방위백서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짐. 일본은 작년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함. 방위성이 이 기술을 올해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규정한 이후 8년째 유지하는 것임.

## 라. 미·중 관계

### ● 中 후진타오, 美에 "민감 이슈 적절 처리하자"(7/25)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토머스 도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중미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양국 간에 민감한 이슈들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함. 25일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후 주석이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도널런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함.
- 후 주석은 우선 "중국과 미국 관계가 양측의 노력으로 최근 몇 년 새





안정적인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미 상호 존중과 호혜의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후 주석은 그러면서 "중미 양국이 서로의 주요 이익과 관심사를 존중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안정적이고 주의 깊게, 적절한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역설함.

- 차이나데일리는 도널던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이 연말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양국이 시리아 사태, 이란과 북한 핵, 국제무역 문제 등으로 불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그 의미가 작지 않다고 분석함. 도널던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의 하나로 "양국 정상 간에 합의된 사안은 물론 모든 양자 분야, 지역 및 세계적 이슈들에 대해 미국은 중국과 협력을 심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회담에서 미 측은 시리아 유혈사태에 대한 서방 해법에 대한 지지를, 중국 측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의 '불개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이란과 북한 핵, 조어도 분쟁, 위안화 환율과 무역 불균형 문제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짐.

#### 마. 미·일 관계

##### ● 美, 日에 수직이착륙기 배치...주민 반대시위(7/23)

- 미국이 일본에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신형 수직이착륙기를 배치함. 교도통신에 의하면 미군은 23일 오전 신형 수직이착륙기 MV-22 오스프리 12대를 민간 수송선에 실어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시의 주일 미군 기지로 반입함. 이르면 8월말에 이와쿠니 기지에서 시험비행을 거친 뒤 10월부터 오키나와(沖縄)의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에서 본격 운용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오키나와에 24대를 배치할 방침임.
- 이와쿠니시 주민들은 이날 고무보트 10척을 동원해 수직이착륙기 배치에 항의하는 해상 시위를 벌임. 후쿠다 요시히코(福田良彦) 이와쿠니시장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직이착륙기를 배치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불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함. 니이 세키나리(二井關成) 야마구치현 지사는 조만간 도쿄를 방문해 방위상에게 항의하기로 함. 오키나와 주민도 미군의 수직이착륙기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야당도 일제히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지 않고 배치를 용인한 정부를 비판했음.
- 미일 양국은 일단 반입하되 실제 비행은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에 한다는 입장임.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큰 혼란 없이 미군 수직이착륙기의 수송이 이뤄졌다"면서 "안전성을 확인하고 이를 설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발이 커지자 모리모토 방위상은 23일 후지TV에 출연해 "될 수 있는 한 바다 위를 날아서 이착륙하는 비행경로에 대해서 외무성이 미국과 교섭하고 있다"고 밝힘. 비행기 반입지인 오키나와와 야마구치현 외에도 저공비행 훈련 경로에 해당하는





시코쿠(四國) 등 지역에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됨.

- 또 일본 정부는 이번 주말에 방위성과 국토교통성 담당자, 항공공학 연구자로 이뤄진 전문가팀을 미국에 보내 4월에 모로코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의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임.

## 바. 중·일 관계

### ● "日, 센카쿠 매입 비판 주중 대사 9월 교체"(7/23)

- 일본 정부가 도쿄도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매입을 비판한 주중 대사를 9월 교체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3일 보도함.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정기국회 회기(9월 8일) 종료 후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 주중 대사를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함. 민간 출신으로 친중 인사로 분류되는 니와 대사는 지난 6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쿄도의 센카쿠 매입 추진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해 일본 내 우익의 강한 반발을 샀.
- 자민당 등은 우이 대사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즉시 교체를 요구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우이 대사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며 구두 주의했으며, 지난 15일에는 일시 귀국시켜 센카쿠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중국 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도록 지시함. 이토추상사의 사장과 회장을 지낸 우이 대사는 민주당 정권이 관료 출신의 주요국 대사 임명 관행을 깨고 지난 2010년 6월 정치주도의 상징으로 기용한 민간 출신 대사임.

### ● 日 총리 "자위대 이용해 센카쿠 대응할 수도"(7/26)

-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에 대해 일본 총리가 강경 발언을 함.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2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영토나 영해에서 주변국에 의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자위대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해 정부 전체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함. 현재는 해상보안청(해경)이 대응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임. 노다 총리는 또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평소에 위기 관리 태세를 정비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일을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그는 또 안전에 의문이 제기된 미군의 최신형 수송기 MV-22 오스프리에 대해서는 "내가 오스프리에 시승할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를 포함해 지역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함. 노다 총리는 9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정부 해석을 변경하는 문제에 관한 발언을 포함해 보수색을 강조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음.



### ● 中, 日 '자위대로 센카쿠 대응' 발언에 반발(7/28)

- 일본이 자위대를 이용해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분쟁에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함.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7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은 일본의 극히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렬한 불만을 이미 표시했다"고 밝힘. 홍 대변인은 "다오위다오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한 영토"라며 "그 무엇도 영토 주권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결심을 변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함. 그는 이어 "중국은 일본이 외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은 중일 관계의 큰 틀을 중시해 타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함.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2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서 일본 영토나 영해에서 주변국에 의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자위대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해 정부 전체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함.

## 사. 중·러 관계

### ● 러, 불법조업 中어선 또 나포(7/27)

- 러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에 함포 사격을 가하는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섰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신경보(新京報)는 27일 하바롭스크 중국 총영사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24일 중국어선 2척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러시아 국경수비대 경비함에 추가로 나포됐다고 보도함. 이로써 현재 동해 나홋카항에 억류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모두 10척으로 늘어남. 이들 어선은 벌금 부과 등 러시아의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임.
- 러시아는 지금까지 불법 조업 어선을 붙잡았을 때 벌금을 받고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의 선장을 기소함. 기소된 어선 가운데 한 척인 루룽위(魯榮漁)80-117호는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함포 사격을 받고 나서야 붙잡힘.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한 명이 실종돼 한때 양국 간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기도 함. 중국 정부는 사건 초기에는 국내의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듯 러시아 임시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하는 모양새를 취함. 그러나 다시 이번 사건을 '돌발적이며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임.

## 아. 일·러 관계

### ● <日 애완전으로 푸틴 대통령 환심사기 나서>(7/23)

-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 환심 사기 작전의 하나로 동물 애호가인 그에게 애완견을 선물할 예정임.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번 주말 러시아를 방문하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할 일본산 아키타이누 종 새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함.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중순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아키타이누 강아지를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각료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겐바 외무상은 라브로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쿠릴열도 반환 협상 재개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짐.
- 집권 1,2기(2000~2008년) 때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 '절대 양도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했던 푸틴 대통령은 최근 들어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등 태도를 누그러트리고 있음. 일본은 푸틴 대통령의 유화적 태도에 맞춰 러시아와 북방영토 반환 협상을 재개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음.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руп(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세계 제2차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음.

### ● "日 모리 전 총리, 쿠릴열도 교섭 특사 맡기로"(7/26)

-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가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교섭 차 러시아에 특사로 가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26일 보도함. 자민당 의원인 모리 전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과 만나 이같은 뜻을 전함.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 인사를 특사로 활용하는 것은 이례적임. 모리 전 총리가 언제 러시아에 갈지는 불확실함.
- 모리 전 총리는 2001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쿠릴열도 4개 섬 중 2개 섬(하보마이 제도와 시코탄섬)의 반환을 명기한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은 유효하다'는 내용의 이르쿠츠크 성명을 발표함. 이후 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은 '4개 섬 동시 반환론'으로 강경 선회했지만, 민주당 정권은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을 계기로 쿠릴열도 반환 논의가 다시 불붙기를 기대하고 있음. 일본이 쿠릴열도 중 이투руп(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이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쿠릴열도를 합법적으로 차지했다며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음.

### ● 푸틴 "러-日 관계 나쁘지 않아"(7/28)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일본과 러시아 관계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평가함.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흑해 연안 휴양도시 소치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의 예방을 받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러-일 양국 관계가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발전하고 있다"며 "정치 등 가장 민감한 분야에서의 접촉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함. 푸틴은 "현재 양국 교역이 (2008년 경제) 위기 이전 수준인 300억 달러까지 회복됐다"며 "하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이것은 크지 않은 규모"라고 밝혀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임.

-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최대 현안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한편 푸틴은 이날 겐바 외무상과의 면담에서 자신에게 토종 애완견을 선물한 일본 아키타현 지사에게 사의를 표하고, 답례로 시베리아산 고양이를 선물하겠다고 밝힘. 일본 대표단은 하루 전 항공기로 아키타현 토종개 아키타이누 강아지를 공수해와 모스크바 세르메티예보 공항에서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에 전달함.
- '애완견 외교'는 지난 6월 중순 멕시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선물을 약속하면서 시작됨. 당시 노다 총리가 개를 좋아하는 푸틴 대통령에게 아키타이누를 선물하고 싶다는 아키타현 지사의 의사를 전달했기에 푸틴이 받아들임.

## 자. 기. 타

### ● <中 남중국해 '요새화'...군사대치 본격화할 듯>(7/23)

- 중국이 화약고인 남중국해에 급기야 군부대까지 배치할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 진용인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22일 남중국해 요지 3곳을 '싼사(三沙) 경비구(警備區)'로 편성해 군부대를 진주시킬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도 맞불을 놓을 게 명약관화하다는 관측이 제기됨. 근래 중국의 남중국해 '마이 웨이' 행보는 말 그대로 거침이 없음.
- 싘사 경비구 설치는 분쟁해역인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썬잉사 군도), 파라셀(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양사군도), 메이클즈필드 제도(중국명 중사군도<中沙群島>)를 인민해방군 경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군부대 설치의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음. 경비구는 군사작전을 책임지는 한 단위이기도 하고 섬 경비와 민방위 동원, 민병-예비역 부대를 지휘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행정부 격인 국무원 차원에서 싘사 시 당위원회와 시 정부를 설립해 행정권을 확보 의지를 대내외에 공포했다면 이제는 군(軍) 진주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혀 안보권까지 확보하겠다고 나선 것이며 다시 말해 남중국해는 중국의 주권 영역이라고 '선언'한 셈임.
- 문제는 스프래틀리와 파라셀에서 싘사 지배 지역이 서로 얽혀 존재하는 탓에 분쟁국 간에 군 요새화가 진행되면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보고 대치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는 점임. 그렇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무력





분쟁도 수시로 생길 수 있음.

- 사실 필리핀과 베트남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중지를 모아 중국의 남중국해 '전횡'을 차단할 구속력 있는 '행동 수칙' 제정에 나서자 중국이 이에 인해전술, 속전속결로 남중국해 장악 총력전에 나섰다 분석도 나옴. 중국이 돌연 썬사시 정부 설립을 선포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어선단을 남중국해 파견해 '분란'을 일으킨 데 이어 군사력 배치로 안보권까지 장악하겠다는 '안하무인' 행보가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임.
- 중국의 이런 행보에 주변국들은 일단 '관망'하면서도 당혹해하는 분위기임.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이 스프래틀리와 파라셀 내 자국이 실효 지배 중인 섬에 군부대를 서둘러 파견하고 기존 경비 병력에 증강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함. 베트남과 필리핀은 아울러 아세안 차원에서 합의한 남중국해 행동 수칙안을 중국이 하루빨리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미군의 남중국해 개입을 주문할 가능성도 제기됨.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들이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아세안의 남중국해 행동 수칙안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등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 中·베트남, 유물·古지도로 영유권 다툼(7/29)

- 중국과 베트남이 유물과 고(古)지도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음. 베트남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岛>·베트남명 썬영사군도) 등이 자국 영토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라며 서방의 옛 지도를 대거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岛>·베트남명 호양사군도) 해저에서 중국 유물을 대거 발굴했다고 주장함.
- 2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남단의 하이난(海南) 정부 관리는 시사군도 부근의 해저 유적지 12곳에서 도자기, 구리 동전, 선박 조각 등의 유적을 대거 발견했다고 확인함. 260명의 잠수부가 220시간을 뒤져 이런 유물을 찾아냈다고 밝힘. 40개의 섬, 암초, 모래 언덕으로 이뤄진 시사군도는 고대시절부터 중국 상선들이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으로 가던 통로로 이용됐고 침몰 사고도 잦았던 탓에 해저 문화유적이 어마어마하지만, 도굴꾼들의 불법적인 채취도 다반사로 이뤄진다는 게 하이난성 정부의 설명임.
- 다시 말해 중국의 영유권 관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런 불법이 횡행한다는 주장이고, 이를 달리 해석하면 중국 공권력을 동원해 그런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됨. 하이난성이 돌연 파라셀 제도에서 중국 유물을 대거 발굴했다고 발표하고 나선 것은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강수'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며 중국이 한 달 만에 분쟁해역 3곳인 스프래틀리, 파라셀, 중사군도(中沙群岛)를 엮어 관할할 '싼사(三沙)시'를 설립, 가동하는가 하면 해당 시를 인민해방군 편제에 넣





어 남중국해 행정권과 군사안보권 장악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유물 발굴을 증거로 '역사성'을 보탠 영유권 주장을 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앞서 28일 베트남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지도제작자 혼디우스의 지도(1613년)를 확인한 결과 스프래틀리 와 피라셀은 모두 베트남 영토로 표기돼 있다는 것을 포함해 서방의 고지도 56점을 공개하면서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